

한 · 중 · 일 IT부문협력 현황과 개선방향

2004.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목차

1장. 서론	2
2장. 한·중·일 IT산업	3
1. 한국 IT산업 현황	3
2. 중국 IT산업 현황	7
3. 일본 IT산업의 현황	12
3장.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관계와 FTA	17
1.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17
2. FTA와 동북아 IT산업	22
4장.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24
1.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24
2. FTA와 한·중·일 IT협력	29
5장. 결 론	34

1장. 서론

IT의 발전은 전기, 철도 등 산업혁명 이래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대규모 기술혁신보다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IT를 통하여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생산능력이 증대함은 물론, 지식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진 각국은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IT산업은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80년대의 PC, 90년대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대두로 인해, IT산업은 직접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하였다. 또한 IT산업은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한·중·일 3개국의 IT기기 생산액은 2003년의 경우 약 3114억불에 달하여 세계 1위 생산국인 미국의 2264억불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의 활용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성장 잠재력의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IT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3개국 IT부문의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의 확대는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의 통합과 동반성장에 중요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IT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각국 IT부문의 발전은 단순히 IT부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동 지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는 동지역 IT부문의 교류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3국 IT산업의 현주소와 교역·투자관계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협력방향을 제시함으로써 3국간 FTA 추진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중·일 IT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한·중·일 IT산업의 교역·투자 현황과 FTA가 갖는 의의를 살펴본다. 이어 4장에서는 한·중·일 IT부문의 유망 협력분야 및 FTA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이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 한 · 중 · 일 IT산업

1. 한국 IT산업 현황

한국의 IT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90년대 초반 가전·자동차산업의 뒤를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기준 13%에 달하였다. IT산업의 GDP 비중은 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향후에도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FTA 체결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 IT산업의 현황은 물론 강점 및 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일본과의 FTA추진시의 IT부문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IT산업의 성장추이 및 전체 경제성장률에의 기여도를 살펴보자. IT산업의 부가가치는 생산액의 약 45% 수준으로, '02년에는 약 35%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03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르는 내수 침체로 11.3%의 성장에 그쳤으나 여전히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GDP비중도 '02년의 12.3%에서 13.0%로 증가하였다.

<표1> IT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의 GDP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IT산업 생산액	145.0	147.8	188.0	208.8	235.3
증가율	37.9%	1.9%	27.2%	11.0%	12.7%
IT산업 부가가치액(A)	61.0	62.6	84.3	93.8	105.8
성장률	23.6%	2.5%	34.8%	11.3%	12.8%
GDP 비중	10.5%	10.1%	12.3%	13.0%	13.6%

자료: KISDI(2003)

특히 비IT산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국내 IT산업의 실질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GDP 증가분에서 IT산업 부가가치 증가액의 비중은 '02년 30.4%에서 '03년 37.0%에 달하여 IT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IT산업이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2>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실질경제성장률	5.0	-7.0	11.0	9.0	3.0	6.0	3.0
IT산업 실질성장기여도	37.6	-	32.8	46.8	45.2	30.4	37.0

주 : 1998년은 (-)성장으로 기여율 구할 수 없음. 성장률 및 비중은 실질성장률 및 실질 GDP증가분에서의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국내 IT산업은 반도체, LCD, 이동전화 단말기 등 주력제품의 수출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IT기기분야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IT산업 생산의 약 70%대를 차지하고 있다. IT산업의 수출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2003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575억불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요한 IT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3> IT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2000	2001	2002	2003p	2004. 1/4
수 출	512.0	385.5	462.7	574.7	174.0
수 입	354.7	279.2	308.5	363.9	101.5
수 지	157.3	106.3	154.2	210.8	72.5

주: P: Preliminary

자료: 2003년까지는 KAIT, 2004년은 IITA

<표4> 국내 IT수출 상위 5개국 및 비중

순위	2000	2001	2002	2003	2004. 1/4
1	미국(31%)	미국(27%)	미국(23%)	미국(20%)	미국(20%)
2	일본(10%)	일본(10%)	중국(13%)	중국(16%)	중국(15%)
3	홍콩(7%)	홍콩(8%)	홍콩(10%)	홍콩(11%)	홍콩(11%)
4	싱가포르(7%)	중국(7%)	일본(9%)	일본(8%)	일본(9%)
5	대만(7%)	대만(7%)	대만(7%)	대만(6%)	대만(6%)
합계	61%	59%	62%	61%	60%

자료 : ETRI

<표5> IT기기 생산규모별 국가순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가 순위	총액(\$M) (전체대비)	국가 순위	총액(\$M) (전체대비)	국가 순위	총액(\$M) (전체대비)	국가 순위	총액(\$M) (전체대비)
1위	미국	314,499 (28.1%)	미국	250,781 (27.7%)	미국	220,048 (25.4%)	미국	226,448 (24.7%)
2위	일본	204,146 (18.2%)	일본	163,695 (18.1%)	일본	144,141 (16.7%)	일본	149,946 (16.4%)
3위	한국	67,611 (6.0%)	중국	73,293 (8.1%)	중국	84,192 (9.7%)	중국	101,609 (11.1%)
4위	중국	58,620 (5.2%)	한국	48,041 (5.3%)	한국	53,996 (6.2%)	한국	59,886 (6.5%)
5위	말레이시아	54,150 (4.8%)	대만	37,957 (4.2%)	대만	42,652 (4.9%)	대만	47,473 (5.2%)
6위	대만	50,271 (4.5%)	영국	36,707 (4.1%)	싱가포르	33,976 (3.9%)	싱가포르	36,205 (3.9%)
7위	싱가포르	45,187 (4.0%)	독일	32,951 (3.6%)	영국	33,861 (3.9%)	영국	33,355 (3.6%)
8위	영국	42,370 (3.8%)	싱가포르	32,785 (3.6%)	독일	29,463 (3.4%)	독일	29,846 (3.3%)
9위	독일	36,476 (3.3%)	말레이시아	29,011 (3.2%)	말레이시아	28,105 (3.3%)	말레이시아	29,485 (3.2%)
10위	프랑스	27,825 (2.5%)	프랑스	25,091 (2.8%)	프랑스	22,738 (2.6%)	프랑스	23,173 (2.5%)
전체 총액	1,119,628 (100%)		903,849 (100%)		864,679 (100%)		916,798 (100%)	

자료: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3)

주: 2002~2003년은 추정치임

국내 IT산업의 이러한 성과는 대내외 IT시장의 확대에 정부 및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첫째, 해외 IT시장의 고성장은 국내 IT산업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내수시장의 확대도 간과할 수 없는 성장요인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대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셋째, 정부의 IT정책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현재 국내의 모든 역무에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르는 통신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관련 기기/부품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래 정부의 정보화 추진은 IT 내수시장의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IT서비스/제품의 Test-bed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IT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국내 IT산업은 기술혁신의 양적 수준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최근의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GDP대비 IT특허 2위(1999), GDP대비 컴퓨터공학 논문수 3위(2000)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T산업의 민간 R&D 투자규모는 3위(1999), 민간 R&D 평균성장률은 6위(1995~1999)를 기록하였다. 특히 IT산업은 2000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 R&D의 48%를 담당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40% 이상이 IT분야에 투자되었다. 국내 IT부문은 IT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선 및 이동전화 보급비율도 선진국 수준이며, GDP대비 통신투자 비중은 OECD 3위(2000),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중 4위(2001), 인터넷 사용시간 및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1위(200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IT부문은 기술혁신의 질적수준, 인재육성 및 노동시장 환경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수출대비 내수시장이 작은 편이며, IT제조업이나 통신서비스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약점이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IT산업은 2000년 기준 OECD국가 중 GDP대비 IT비중(3위)에 비해 IT내수시장 비중(17위)이 상당히 낮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GDP대비 비중은 0.7%('99), 내수시장 대비 비중도 11.8%에('01, 핀란드는 28.6%, 미국은 36.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IT분야 R&D 및 벤처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0년 우리나라 IT특허의 피인용도 지수는 OECD 16위, 논문 피인용 횟수는 21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내 IT기술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WE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회원국 가운데 국내 IT훈련 및 교육 수준은 21위, 두뇌유출 가능성은 25위로 나타나(2000년)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IT인프라는 물리적인 구축의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이나 인터넷의 활용 측면은 여전히 미흡함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100인당 전화회선수 48.6, 이동통신가입자 68.0, 인터넷 이용자수 55.2, 초고속인터넷 13.9, PC 보급대수 34.2를 기록하여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으나 1000인당 서버수, 웹페이지수가 각각 18위, 22위에 그쳐 인프라의 활용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상, 국내 IT산업의 현 위상을 Porter의 경쟁력 발전 단계¹⁾(stages of competitive development)개념에 따라 평가해보면 투자주도의 발전단계 (investment-driven economy)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품 생산능력이나 R&D 투자 규모, 시장환경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면 단순한 요소의 투입증대에 의존한 성장단계를 벗어나 있으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신산업 창출 등 이노베이션이 주도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 IT산업은 통신서비스부문의 내수시장이 성숙하여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신기술의 대두로 인하여 기기부문에서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FTA등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2. 중국 IT산업 현황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IT부문에서도 중국의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이미 IT기기/부품 생산액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컬러TV, VTR, 에어컨 등 과거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 품목이었던 백색가전 분야에서 이미 중국은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C 및 이동전화단말기 등 현 우리나라의 IT분야 주력 수출품목 부문에서도 중국의 생산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Huawei Technologies, ZTE, TCL, Bird, Legend와 같이 중국 시장 내 입지 구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이 등장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IT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수출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1995년과 2000년 수출비중은 각각 한국의 1985년, 1990년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어 중국이 한국을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컴퓨터, 통신기기 등은 타산업에 비해 IT부문에서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M. 포터는 경제의 발전을 요소주도 경제(factor-driven economy), 투자주도 경제(investment-driven economy) 및 혁신주도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라는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가 성숙할수록 요소투입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해지는 발전경로를 제시하였다. IT산업은 생산아웃소싱 등 생산프로세스 및 가치창출의 단계별 국제간 분업으로 인하여 다양한 발전단계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포터의 단계론 적용이 가능하다.

<표6> 한국, 중국의 품목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한국					중국			
	1980	1985	1990	1995	2000	1995	1998	1999	2000
농수산물	7.7	4.5	3.8	2.5	1.7	9.2	7.3	6.6	6.0
원유·석유제품	0.5	3.1	1.1	2.0	5.4	3.6	2.8	2.4	3.1
섬유류	27.1	20.8	18.8	14.2	10.5	24.0	21.7	21.2	19.8
신발류	5.2	5.2	6.6	1.2	0.5	4.5	4.6	4.4	4.0
고무 및 타이어	2.9	1.7	1.6	1.3	1.2	0.5	0.6	0.6	0.6
완구 등	2.2	2.5	2.4	1.1	0.7	4.4	5.0	4.7	4.3
잡제품	5.7	5.0	6.5	1.7	1.2	8.0	7.9	8.2	7.9
전기·전자제품	11.6	15.7	27.1	34.9	39.3	12.7	20.7	23.4	25.7
(컴퓨터)	0.3	1.8	3.9	3.8	11.2	-	5.7	6.1	6.7
(무선통신기기)	0.4	0.7	1.1	1.6	4.9	-	1.1	1.3	2.3
(유선통신기기)	0.1	0.5	0.7	0.7	0.4	-	1.0	1.2	1.3
(가전)	5.7	6.1	8.8	5.8	4.3	-	4.3	4.7	4.9
(반도체)	2.5	3.2	7.0	14.1	12.3	-	1.0	1.6	1.8
기계류·정밀기기	3.5	3.1	5.0	6.8	6.1	8.8	6.6	6.7	6.8
자동차	0.7	2.3	3.6	7.5	8.9	1.2	1.2	1.4	1.8
선박	3.6	16.6	4.3	4.4	4.8	0.6	1.0	0.8	0.7
철강·금속	13.3	11.2	9.0	8.2	6.8	8.1	6.9	6.4	6.7
화공품	5.0	3.5	4.7	7.8	8.6	8.0	8.0	7.8	7.2

자료 : 종합무역정보서비스(KOTIS)

한편, 중국 IT생산의 증가 과정에서 각기 차별화된 3개의 IT집적지가 부상하여 중국 IT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상해시, 江蘇省, 저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長江)델타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으로 첨단 IT산업 및 금융의 중심지로 대두하고 있으며 광저우(廣州), 廣東省 일대의 주강(珠江)델타는 IT 제조·생산기지로, 다국적기업의 R&D센터가 밀집한 북경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표7> 중국 IT집적지 특성비교

	북경	장강델타	주강델타
지역	- 中關村科技園區	- 중부지역: 상해, 저장성, 강소성	- 남부지역: 廣東省
성격	- 중국의 실리콘밸리 -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자연발생적 집적지	- 첨단 IT산업의 메카 - 중앙정부 및 시의 계획조성	- 중국 최초 경제특구 지정(深圳) - IT생산거점 - 제조업 기술도입의 관문 - 민간기업 중심의 선진적 개방체제
주력산업	- 연구개발단지 - S/W 산업단지	- 반도체 - 노트북 - 이동전화단말기	- 컴퓨터(PC) - 전자부품
특징	- 산학협동연구 - 연구개발 집적형 - 중국기업 중심	- 내수지향 대기업형 - 고부가가치 자본장비형 - 외국계 기업 중심	- 수출지향 조립생산설비 - 저임금 노동집약형 - 홍콩·대만 기업의 생산설비 이전
GDP 비중(2002)	5.0%	18.7%	9.2%
수출(2002)	242억달러	920억달러	1,125억달러
외자유치(2002)	89억달러	183억달러	149억달러
장점	- 대학집중, 기술인력 풍부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R&D 거점 - 산학여건 조성 →벤처요람 - 天津경제특구와 연계	- 고소득지역, 시장발달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첨단 생산기지 - 물류 중심지	- 풍부한 저임노동력, 부품조달용이 - 대만, 홍콩, 마카오 연계 →수출거점 - 유리한 제도적 환경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삼성경제연구소(2003)

그러나 중국 IT기업의 경쟁력은 아직은 저임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기술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기술환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는 현지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첨단기술을 중국에 이전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 또한 IT분야를 중심으로 공장설립도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중국 내 조립, 검사, 가공하는 생산 프로세스상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반도체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은 후공정 및 파운드리 중심으로, 그리고 8인치 0.18미크론 이상의 성숙기술 중심으로의 기술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TFT-LCD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에도 부가

가치가 낮은 완제품 조립이나 반제품(모듈)생산설비 중심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8> 외국 반도체 업계의 대 중국 투자특징비교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투자형태	獨資위주	合資, 기술협력	合資위주→獨資모색	合資위주→일부合資
진출방식	후공정중심	판매/조립위주→ 생산/설계	초기전공정→ 후공정위주	파운드리 생산위주
주요업체	Motorola, Intel, AMD, Amkor	NEC,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후지쓰	Bell, Philips, STMicro	TSMC, UMC, Macronics, 大王電子

자료: 반도체산업협회(2002)

<표9> 외국 TFT-LCD업체의 중국 내 투자 현황

국가	기업명	공장위치	생산품목	비고
대만	AUO	Suzhou	LCD모듈	대형 모듈 100만개 중소형 모듈 200만개
	CPT	Wujiang Jiangsu	LCD모듈	2004년 1분기에 100만개 대형 모듈 생산
	HannStar	Nanjing Jiangsu	LCD모듈	연말까지 25만개 모듈 생산
	Quanta	Shanghai	LCD모듈	
	CMO	Shanghai	LCD모듈	최근 주주회의에서 투자 승인
한국	LG전자	Nanjing	PDP모듈	2003년 10월부터 월 2만대 규모
	LG전자	Nanjing	LCD모듈	2002년 5월부터 본격 가동
	삼성전자	Suzhou	LCD모듈	2003년 7월부터 월 10만대 규모
	BOE-Hydis	Beijing	LCD패널 (계획)	2005년부터 5세대 생산라인 양산 계획

자료: 전자신문(2003.9)

이동전화단말기 부분의 외국계 기업도 대부분 완제품 조립생산 중심의 생산설비운용과 현지화 중심의 R&D센터를 운용 및 전략적 제휴를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IT산업은 발전단계상 요소주도의 성장단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 일본과의 FTA는 IT부문 교역의 확대와 함께 IT부문에 대한 FDI증대를 통하여 IT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및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 IT내수시장의 개방이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IT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1993-2001년 중국 IT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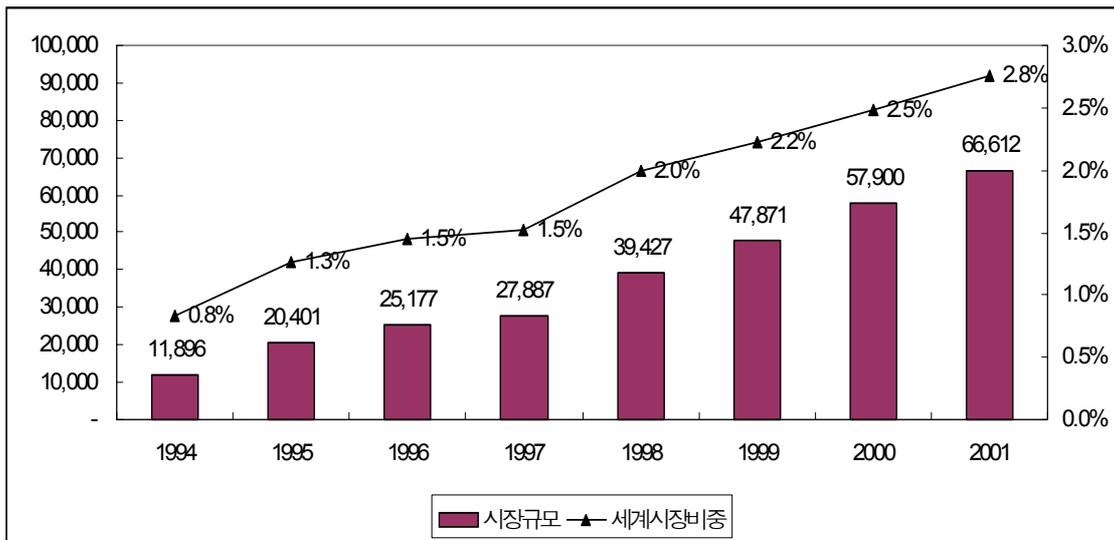
<표10> 세계 주요 이동통신단말기업체별 중국 진출 동향

업체명	구분	내용
노키아	설립연도	1985년
	중국진출	7개의 생산공장 및 R&D센터 종업원수 3,000명 중국내 투자액 10억달러 이상
	전략적 제휴	생산품의 현지화
모토로라	설립연도	1988년
	중국진출	독자기업 1개, 주식유한회사 1개, 합작기업 8개 지사 26개, 연구센터와 실험실 18개 종업원수 1,300명 중국내 투자액 35억달러(중국 최대 투자기업)
	전략적 제휴	투자 및 기술양도, 관리의 현지화, 현지구매 원칙 합작기업, 합작 프로젝트 적극 추진
에릭슨	설립연도	1985년
	중국진출	사무소 24개, 합작사 10개, 이동통신기술연구소 등 종업원수 4,000명 중국내 투자액 총 5억달러
	전략적 제휴	현지화
지멘스	설립연도	1993년
	중국진출	사무소 22개 중국내 투자액 11억달러(아시아지역 총 15억달러)
	전략적 제휴	장비와 단말기에 중점투자, 공동연구

자료: ETRI

[그림1] 중국 IT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IDC(2002)

그러나 중국은 엄청난 시장규모에 비해 IT관련 각종 상대지표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IT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시장의 확대 여지도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FTA를 통하여 수출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표11> 2001년 중국 IT시장의 상대지표

GDP대비 IT시장 비중	1인당 IT시장규모	인터넷 보급률	가구당 전화보급률
5.7% (세계 37위)	52.7달러 (세계 46위)	2.1% (세계 34위)	0.54 (세계 43위)

자료: IDC(2002)

3. 일본 IT산업의 현황

일본의 IT산업은 2003년 기준 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296억불에 달하였고 특히 기기 생산액은 1499억불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IT산업이 일본의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0.6%, 2000년 11.2%, 2001년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IT 내수시장 규모는 2003년 약 947억불 수준으로 2008년까지 연 2.8% 성장하여 2008년에는 약 1,076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3년 말 전 세계 IT 시장에서 일본 IT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수준으로, 2004년에는 10.0%, 2008년에는 8.8%대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IT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의 시장 성장세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표12> 일본 IT시장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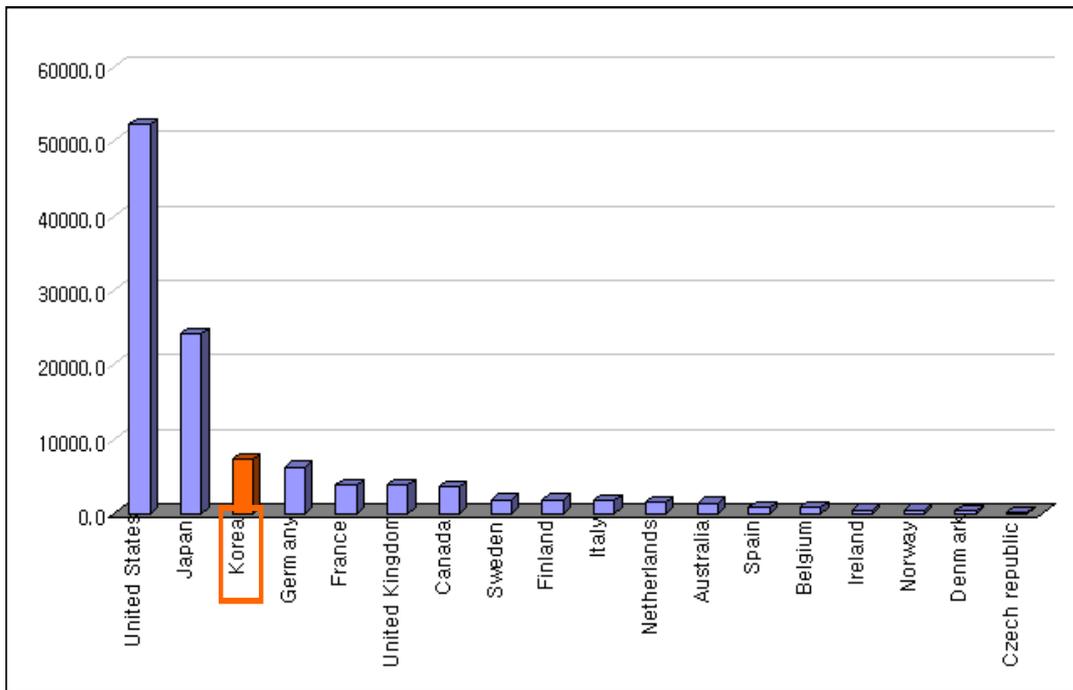
구분	2003년	2004년	2008년	'04~'07 CAGR
일본 IT 시장규모	94,680.8	96,348.5	107,578.4	2.8%
하드웨어	40,353.8	40,293.7	41,216.7	0.6%
소프트웨어	15,991.8	16,688.5	19,348.5	3.8%
IT서비스	38,335.2	39,366.2	47,013.3	4.5%
전세계 IT시장규모	915,923.8	961,916.8	1,226,036.6	6.3%

자료 : IDC 2004.4

기존의 전자분야에 있어서의 기술력과 연 200억불을 초과하는 민간부문의 IT분야 R&D투자를 통하여 일본의 IT분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기에서 일본은 미국에 비해 설계기술력에서는 뒤지나 한국 및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앞서 있으며 특히 기존의 AV분야 기술력이 강점을 발휘하여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폰, DVD레코더, PDP TV, 게임기 등 정보가전 분야에서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²⁾. 일본이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달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부품산업은 각 부문에서 세계 1, 2위의 생산 및 수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등 일부 범용부품에서도 신제품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최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³⁾.

[그림2] IT 분야의 민간 R&D 규모(2000)

(단위: 백만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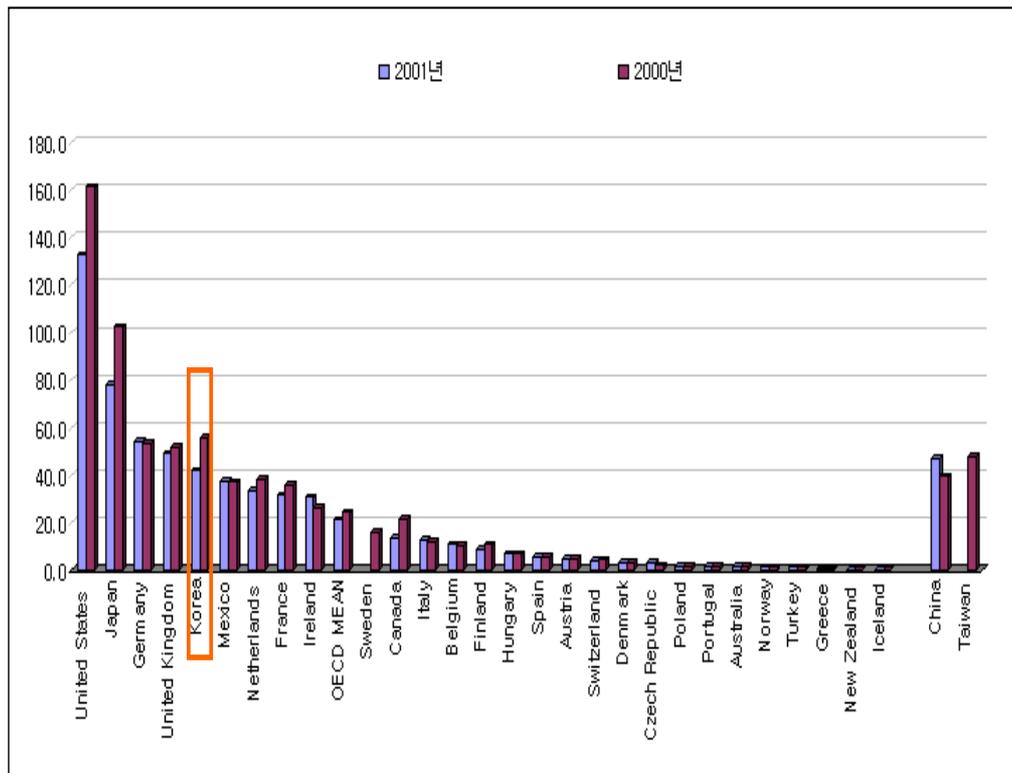
자료 : OECD ANBERD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KISDI가 추정

- 2) 미국 디지털가전시장에서의 일본 점유율이 '02년 15%대에서 '03년 18%대로 증가하였다.
- 3) 최근 엘피다, FHP, 샤프 등 주요 전자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로 향후 DRAM, PDP, LCD 등 첨단분야 경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IT산업은 수출규모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분야는 세계시장의 25.3%를 차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⁴⁾. 일본의 IT분야 생산이 상당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기업의 세계 IT 시장에서의 위상은 실제 교역통계상의 수치보다 더 높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3] IT 분야의 수출 규모(2000, 2001)

(단위 :10억달러)



자료 : OECD ITCS DB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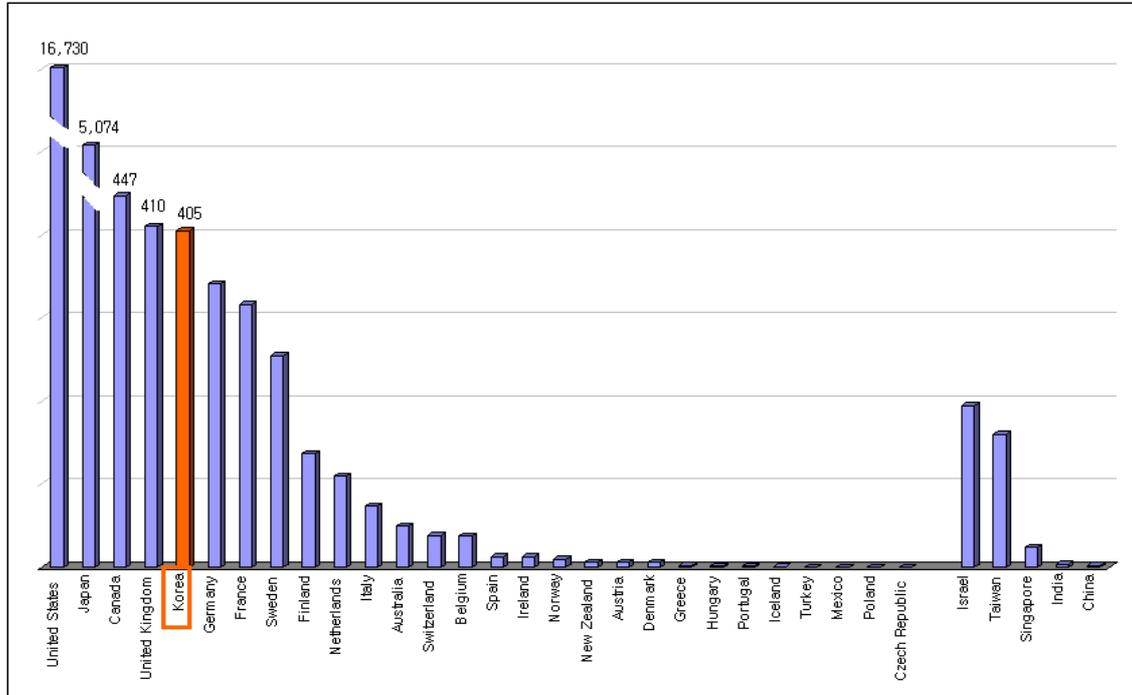
일본 IT분야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IT특허 수와 영향력을 모두 감안한 5년 평균 기술력(Technical Strength) 지수를 통하여 평가해 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⁵⁾. 결국 일본 IT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우위에 있다고 하겠으며, 일본 기업과 정부도 기술경쟁력의 유지를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와 지적소유권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장래 수익창출 및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허의 유효활용을 통한 경합기업의 시장참여 저지, 시장점유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4)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3

5) 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KISDI. 2003. 12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이 최근 수립('03년 7월)되어 기업의 기술경쟁력 유지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4] IT 분야의 절대 기술력 수준(1996~2000)



자료 :KISDI

반면, 일본의 IT인프라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동전화보급률, PC보급률, 인터넷이용자 비율 등 일부분야에서 한국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통신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가 미진했고 장기간의 불황으로 IT인프라에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표13> 일본 IT인프라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01년		2002년		CAGR('97-'02)	
	가입자수	보급률	가입자수	보급률	가입자수	보급률
유선통신	73325	57.6	71149	55.8	1.6	1.4
무선통신	74819	58.8	81118	63.7	16.2	16.0
PC보급대수	45600	35.8	48700	38.2	13.8	13.6
인터넷이용자	48900	38.4	57200	44.9	37.7	37.4

자료 : ITU 2003.

요약하면, 일본의 IT산업은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수준에 올라있어 ‘혁신주도’의 성숙한 단계에 위치해 있는 반면 내수시장의 성장 및 투자의 정체와 세계표준 선도 실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중·일 FTA 등 역내시장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일본 IT산업에 새로운 성장에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특히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일본의 입장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장.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관계와 FTA

1. 한·중·일 IT산업 교역·투자

최근 한·중·일 3국의 IT부문 교역규모는 '98년 151억불에서 '03년 524억 불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역내 IT분야의 시장통합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IT부문 한·중 교역은 1998년 한국의 대중수출 11억불, 수입 8억불에서 2003년 각각 106억불, 40억불으로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한국의 2번째 IT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IT부문 한·일교역도 동기간 중 한국의 대일수출 26억불, 대일수입 38억불에서 각각 53억불, 78억불로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대중 IT수출은 29억불에서 136억불, 수입은 39억불에서 109억불로 증가하였다.

<표14> 한·중·일의 IT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대 일 무역						
영상·음향기기	635.0	676.2	734.1	569.1	604.2	544.7
통신기기	127.6	218.8	401.0	494.3	335.7	725.4
컴퓨터및주변기기	184.9	1,363.8	2,724.3	1,772.3	1,352.7	1,099.6
반도체및관련부품	1,609.8	1,875.2	2,762.8	1,818.6	2,336.9	2,918.4
합계	2,557.3	4,134.0	6,622.2	4,654.3	4,629.5	5,288.0
대 중 무역						
영상·음향기기	556.3	1,103.0	1,669.2	1,450.3	1,663.0	1,750.4
통신기기	289.2	363.8	390.3	710.7	2,501.8	3,520.3
컴퓨터및주변기기	126.9	282.6	768.4	764.3	1,899.8	3,883.4
반도체및관련부품	157.7	249.5	549.6	374.5	760.3	1,473.3
합계	1,130.1	1,998.9	3,377.5	3,299.8	6,824.9	10,627.4
일 중 무역⁶⁾						
영상·음향기기	622.7	674.3	820.8	841.5	986.8	1,269.4
통신기기	896.7	1,143.6	1,872.6	1,825.3	2,413.7	4,338.4
컴퓨터및주변기기	876.0	1,294.9	2,047.1	2,288.3	3,853.7	5,932.6
반도체및관련부품	457.1	517.3	918.1	1,043.3	1,284.4	2,091.2
합계	2,852.4	3,630.1	5,658.7	5,998.4	8,538.6	13,631.6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주: 일중무역에서 엔(¥)으로표기된 연간수출입액을 한국은행의 연평균 엔/달러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변환·사용했음

6) 한국무역협회에 있는 각국수출입통계는 해당국가로부터 통계자료를 직접입수해오기 때문에, 동일품목에 대한 수출입이라 도 양국의 통계치간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일본·중국의 무역수지액을 일본에서 발표한 수출입자료로 이용하였다.

무역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한·일 IT무역수지는 한국의 무역역조 현상이 지속되어 2003년에는 25억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며 전체 IT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다. 한·중 IT무역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5억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통신기기와 반도체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되며 전체 IT부문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일·중 IT무역수지는 1998년 이래 대체적으로 일본의 대중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구조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약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일본의 중국에 대한 IT무역수지 적자는 저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표15> 한·중·일의 IT산업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대 일 무역						
영상·음향기기	699.4	962.7	1,137.0	740.2	770.6	793.7
통신기기	327.5	736.7	1,086.7	967.5	1,043.8	1,378.0
컴퓨터및주변기기	307.8	571.6	1,005.2	840.1	814.2	585.6
반도체및관련부품	2,424.1	3,375.5	4,301.1	3,471.6	4,032.7	5,078.9
합계	3758.8	5646.5	7530.0	6019.4	6,661.2	7,836.1
대 중 무역						
영상·음향기기	210.5	304.8	443.2	540.5	621.1	683.1
통신기기	118.6	184.8	308.5	503.5	624.5	768.7
컴퓨터및주변기기	224.7	554.9	834.0	940.9	1,035.8	1,557.3
반도체및관련부품	272.9	583.8	647.2	454.6	646.3	1,037.5
합계	826.7	1628.3	2232.9	2439.5	2,927.6	4,046.5
일 중 무역)						
영상·음향기기	1,137.7	1,401.0	1,632.4	2,008.8	2,167.4	2,471.6
통신기기	980.4	1,162.6	1,532.3	2,354.5	2,520.7	3,600.4
컴퓨터및주변기기	760.9	926.2	1,062.1	1,416.6	1,657.2	2,273.4
반도체및관련부품	1,066.2	1,206.9	1,510.0	1,804.3	1,937.7	2,580.9
합계	3,945.2	4,696.7	5,736.7	7,584.2	8,283.0	10,926.4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주: 일중무역에서 엔(¥)으로표기된 연간수출입액을 한국은행의 연평균 엔/달러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변환·사용했음

7)한국무역협회에있는각국수출입통계는해당국가로부터통계자료를직접입수해오기때문에,동일품목에대한수출입이라
도양국의통계치간에차이가있다.여기서는일본·중국의무역수지액을일본에서발표한수출입자료로이용하였다.

한·중·일 FDI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FDI 유입액이 최근 3~4년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FDI는 급성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2000년 이후의 세계적인 FDI 하락 추세 속에서도 중국으로의 FD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FDI 유입액이 527억 달러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및 일본의 대중 투자 증가도 한 원인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IT분야 투자는 2003년 11월 현재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대중투자의 약 20.7%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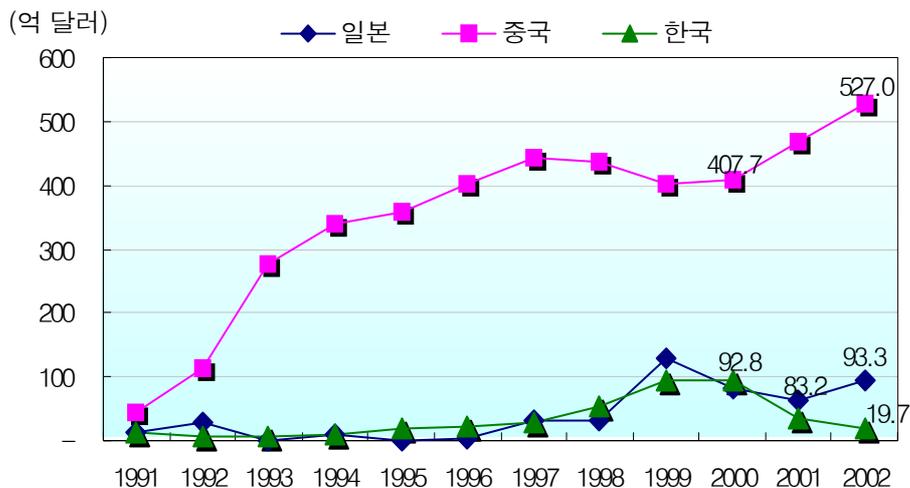
<표16> 세계 FDI 유입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억 달러, %)

	1999	2000	2001	2002
FDI 총유입액	10,790.8	13,929.6	8,238.2	6,511.9
(증가율)	(57.3)	(29.1)	(-40.9)	(-21.0)
미 국	2,833.8	3,140.1	1,439.8	300.3
한중일	623.9	583.8	566.2	640.0
한 국	93.3	92.8	35.3	19.7
중 국	403.2	407.7	468.5	527.0
일 본	93.3	92.8	35.3	19.7

자료: UNCTAD DB,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UNCTAD)

<그림 5> 한·중·일 FDI 유입액 추이



자료: UNCTAD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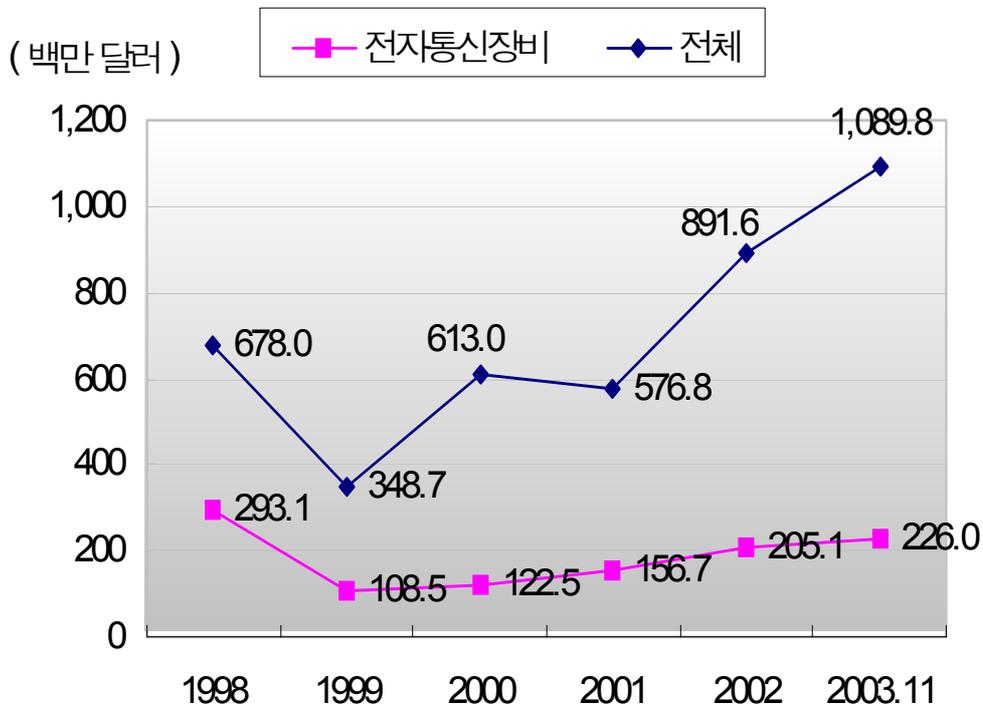
<표17 > 한국의 산업별 FDI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누 계 (1962~2003)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농·축·수산·광업	7	17	18	6	210	416
제조업	581	2,337	585	1,696	10,567	39,732
(전기·전자)	188	517	193	297	2,868	12,069
서비스업	1,772	5,130	1,915	4,131	15,030	46,037
합계	2,402	9,102	2,560	6,467	26,239	91,117

자료: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산자부(2004. 1)

<그림6 > 한국기업의 대 중국 IT 산업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18 > 한국기업의 대 중국 IT산업 투자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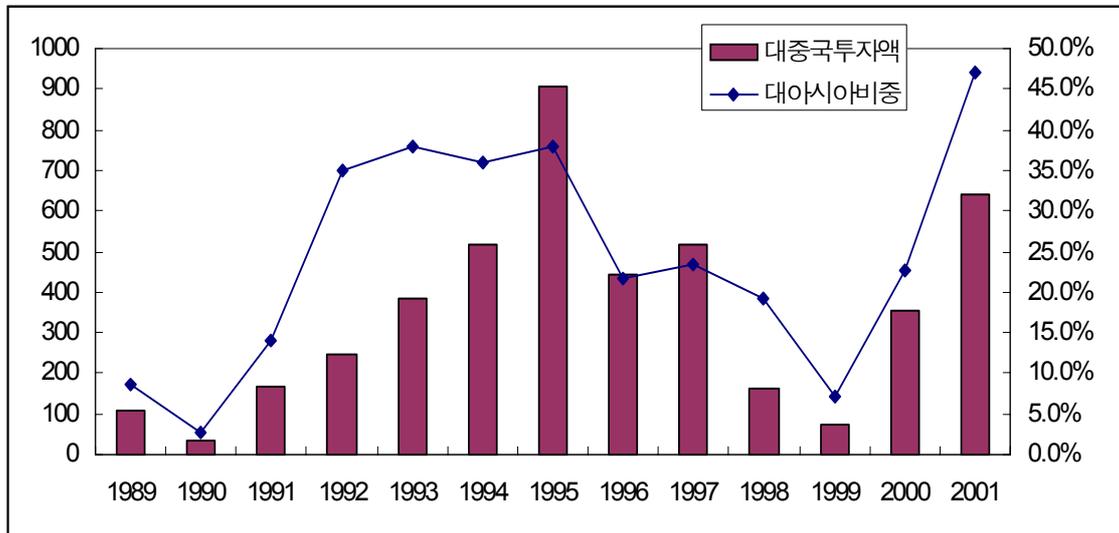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1	누 계
전자통신 장비분야	건수	23	30	91	133	225	215	1,000
	금액	293,142	108,464	122,484	156,722	205,115	226,034	1,673,131
	비중	43.2%	31.1%	20.0%	27.2%	23.0%	20.7%	21.5%
중국전체 투 자	건수	263	457	766	1,028	1,331	1,377	8,829
	금액	677,950	348,691	612,958	576,845	891,601	1,089,817	7,768,783

자료: 중국의 IT산업의 현황 및 우리 기업의 진출방향, 한국수출입은행(2004.3)

일본의 경우 전기·전자산업 부문에서의 전체 아시아에 대한 투자 대비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1999년 7.1%에서 2001년 47%로 급증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일부 완제품 수입 외에 중국현지 생산기지로부터의 역수입으로 인하여 대중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7] 일본의 대중국 전기전자산업 투자 추이

(억엔, %)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이처럼 지난 수년간 한·중·일 3국간 IT분야 교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은 IT분야에 있어서 동 지역에서의 FTA를 위한 조건이 성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FTA와 동북아 IT산업

한·중·일의 IT산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전단계상의 차이가 존재함과 동시에 교역·투자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IT산업의 국제화를 들 수 있다. IT산업은 R&D에서 단순 조립가공에 이르는 공급체인상의 각 단계에서 국제적인 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으로, 발전단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국제분업의 제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FTA는 분업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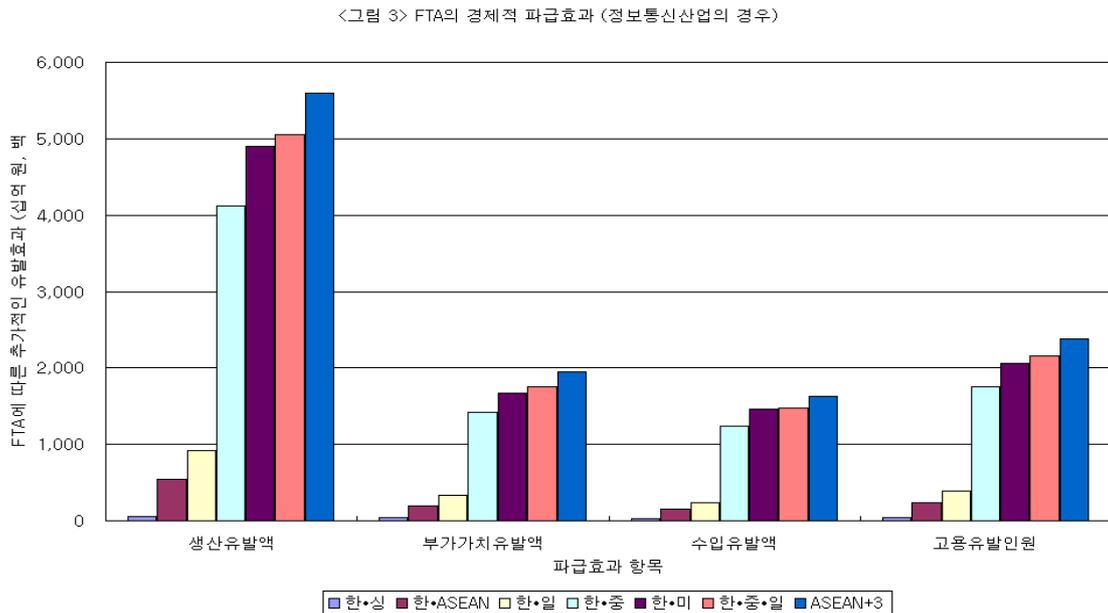
규모의 경제 및 외부성이라는 IT산업의 특성도 FTA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IT산업은 첨단 지식집약산업(knowledge intensive industry)으로, 새로운 지식이 동일산업內的 기업간에 파급(spillover)되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에서는 IT산업內 유관부문이 서로 간에 idea, 근로자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IT산업 생산의 증대는 IT산업내의 기업간 교류 확대 및 지식의 파급으로 비용(및 가격)의 하락, 즉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FTA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업자 및 교역국의 소비자가 혜택을 입게 된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및 국가)은 FTA로 인한 교역 확대의 이익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결국, IT산업과 같이 교역기회의 확대에 부응한 시장의 선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업간 지식의 파급(spillover)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FTA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IT산업에서 FTA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FTA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의 기회비용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일본·동남아간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교역장벽으로 인하여 경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완성품도 우리나라만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하므로 이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FTA 체결국에 국한된 투자활성화로 국내 유입 FDI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등 개방에 따르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IT부문의 입장에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역내국가와의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FTA는 시장규모 및 투자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한·일 FTA 보다 경제적 혜택이 클 것이며, 두 FTA간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곧 한·일 양국만 포함한 FTA의 기회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철폐에 따르는 한·싱, 한·ASEAN, 한·일, 한·중, 한·미, 한·중·일 FTA의 IT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연구⁸⁾에 따르면 각각의 FTA로 IT산업부문에 추가적으로 490억원~5조 5,930원의 생산유발효과가, 390억원~1조 9,48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50억원~1조 6,330억원의 수입유발효과가, 그리고 500명~23,8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중·일 FTA는 연간 생산유발액 5조58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590억원, 고용유발 2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A 체결시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 FTA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IT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FTA 체결이 요망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림8>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IT산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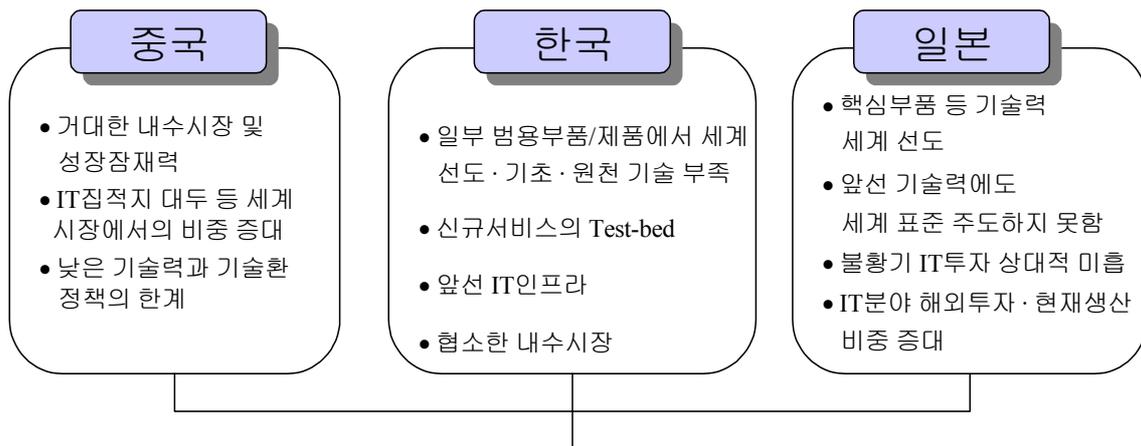
출처 : ICA, "FTA추진을 위한 IT부문 장기전략". 2003. 12

8) 최계영, 박인원 외, "FTA 추진을 위한 IT부문 장기전략". ICA. 2003. 12. 실증분석은 먼저 CGE모형에 의하여 각 FTA의 최종수요에의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이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르는 IT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변화를 한국은행의 1998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산출하였음.

4장. 한·중·일 IT부문 협력방안

1. 한·중·일 IT협력 아젠다

한·중·일 FTA의 현실화는 각국이 참여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기술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이전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으로부터의 FDI 증대 등으로 투자주도의 발전단계(investment-driven economy)로의 도약을 모색하여야 하며 한국, 일본과의 FTA는 이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FTA가 단순히 산업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IT산업내 교역·투자 활성화로 중국 IT산업의 질적 도약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시장확대 및 혁신주도(innovation-driven)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는 IT기업간 제휴, 투자의 활성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으로부터는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장확대·선점에 따르는 이익 및 표준주도 가능성 증대 등 FTA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동북아 3국 IT산업의 발전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관계 정립에 따르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한·중·일 FTA가 필요한 것이다.



FTA 및 IT협력강화: 시장확대·표준선점·경쟁력강화의 계기

그러나 FTA로부터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과 국제협력사업의 개발 등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협력을 보

다 강화시켜 FTA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 국가간의 FTA는 어떤 측면에서는 타지역 경제공동체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 FTA 참여국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분야를 발굴·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FTA참여국 모두의 발전에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IT분야 한·중·일 협력채널과 주요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FTA추진에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가. 한·중·일 IT협력채널과 IT협력약정

최근 한·중·일 3국간에 IT분야에서 다양한 정부간, 민관합동 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한·중·일 IT장관회담 및 ASEN+3 정보통신민간협의회총회 등이 발족되었고 IT장관회담과 함께 한·중·일 국장급회의도 정례화 되어 차세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협력 및 정보교환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은 특정 표준의 공동 개발, 투자안전보장제도 확립과 같이 민간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 2차 한·중·일 IT 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이 동북아지역을 세계 IT 허브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 하에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방송,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공개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정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7개 분야에 대한 IT협력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들 7대 협력분야들은 차세대 신시장에 대한 표준/기술협력과 이를 촉진할 인력교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한·중·일 3국 IT산업의 교류확대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⁹⁾.

<표19> 7개분야 협력사업

9) 2004년 7월 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는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그룹, 인력양성그룹, 표준화 및 인증그룹 등 3개 분과 구성에 합의하고 2010년께 상용화가 예상되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기술개발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이동통신의 국제로밍, 이동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동연구, 개발과 표준화 협력
차세대 인터넷	IPv6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 세미나 개최, 연구개발과 표준화협력, 응용서비스개발, 전문가 교환
디지털 TV/방송	디지털 TV/방송 및 관련 산업의 기술·정보교환, 연구개발 공동협력, 관련 전문가 교류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통신망과 정보보호 정책교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정보교류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응용촉진, 기술 및 연구정보교환, 산학 연구기관교류, 공동연구개발
통신서비스 정책	통신사업자 분류, 통신사업 진입, 보편적서비스, 상호접속,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절차, 통신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규제정책관련 정보교류 추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통신망과 정보보호, SI, 전자정부 협력

나. 표준협력

표준협력은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등 한·중·일 IT장관 회의의 주요 협력 아젠다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IT시장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중·일 IT표준협력은 3국의 기술력 및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구미중심의 표준형성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의 표준은 세계시장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확정 상태이거나 새로이 대두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하여 기술 표준화 작업을 공동수행하고, 국제표준화 단체에서의 활동 시에도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과거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은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자표준을 개발, 보급하려고 시

도하여 왔으나 세계시장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실패하여 왔다. 이는 표준경쟁에서의 생존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한·중·일 3국의 협력에 의한 IT표준은 앞선 기술로 인한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광대한 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3개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 실제적인 세계 표준, 또는 구미의 표준과 경쟁할 수 있는 복수 표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중·일 3개국간 표준협력은 개별 국가 및 기업의 이해관계의 조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표준 장악으로 인한 이익이 큰 만큼,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동기도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 자국기업의 표준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경쟁도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일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 표준을 중국이 자국의 독자적인 표준개발을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국 등 타지역의 기업이 자사가 개발한 표준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도록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유도할 수도 있다¹⁰⁾. 또한 중국은 이미 HDTV, VDSL분야에서 독자표준을 준비 중이며 광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국의 기술력 여하에 따라 일부분야에서는 독자표준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중·일 IT표준협력은 기술·인력교류의 활성화와 기업간 투자·전략적 제휴의 확대가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3개국간 연구소설립 지원 강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사업 확대,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이 중요하다. 결국, 한·중·일 FTA와 IT표준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분야¹¹⁾를 중심으로 표준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IT신산업분야 협력

상기의 7대 협력분야 가운데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방송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 동력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분야이다. 향후 IT산업은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음성 위주의 시장에서

10) 이미 한·중 FTA의 경우 표준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원칙이 이슈가 되는 등, 정부 주도에 의한 특정 표준 채택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향후 주요한 통상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경우 자국 표준의 채택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표준을 둘러싼 국제간 경쟁의 한 단면을 시사하고 있다.

11) 신성장동력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텔레메틱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홈네트워킹, 디지털컨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전지 및 바이오신약으로, 10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9개 분야가 IT 분야이다.

무선/데이터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하면서,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간의 경계도 점차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통신과 방송 간의 경계도 허물어져 궁극적으로 순수한 통신과 방송보다는 융합형 서비스가 산업의 대부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통신서비스분야의 이러한 변화는 IT기기/부품 분야 및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의 기폭제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시장규모도 크고 변화속도도 빠른 IT산업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개발, 확산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률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다.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방송 등 한·중·일 IT협력약정상의 협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표준협력은 물론 다양한 기술·인력교류를 통하여 이동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동연구, 응용서비스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인력교류는 주요 분야별로 기술세미나의 공동개최, 연구기능이 강한 각국 대학에의 국제 연구개발센터 설립, 공공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일정기간 파견, 산학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개발·추진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IT신산업의 대두과정에서 한·중·일 3개국간 IT산업내 교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요 IT신산업분야 부품의 공용화, 부품·소재개발 협력기구의 구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연구망 협력

최근 IT인프라의 고도화추세에 발맞추어 초고속 광대역 글로벌 연구망의 확충이 미국과 유럽 주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APEC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역내 연구망 구축을 주도해 왔으나 국가간 격차 및 국내기반의 미비로 동남아 개도국 지역으로의 확산에는 어려움이 산재하고 동북아에 있어서도 주요 IT교류 대상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과는 아직도 개설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한·중·일 FTA의 추진 시에 IT교류의 확대차원에서 3개국간 초고속 광대역 글로벌 연구망의 구축을 주요 협력 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가동 중인 한·일 연구망에 더하여 한·중, 중·일 연구망이 구축될 경우 이를 핵심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연구망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고속 광대역 기반의 한·중·일 연구망은 대용량의 글로벌 연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연구망의 국제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3국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정책협력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통신서비스 규제정책 등 IT분야의 정책 협력도 중요한 협력분야이다. IT분야의 기술발전과 신제품/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분야간의 융합추세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제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서비스와 기기는 가치사슬 상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IT신산업의 주요 품목은 유·무선 통합, 통·방 융합 등에 따르는 제반 제도의 변화가 밀받침되지 않을 경우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통신서비스는 허가제도, 연관 서비스와의 결합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규제제도 등 제도적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며 각 신규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관련 차세대 기기의 성장에도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도 IT가 고도화되고 실생활에 밀접히 연관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개국간 통신망 안전, 정보보호 및 규제 관련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할 경우 IT분야 교역 및 투자에 애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향후 IT부문에 대한 투자는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과거에 분리되어 있던 사업영역들이 융합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도 및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 하에서 한·중·일 3개국간 정책상의 이질성이 높고 및 이해도가 낮을 경우 민간의 교역·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 IT분야 정책담당자간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각국 제도간의 공통분모를 넓히고 해당국 IT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IT장관회의 국장급회의 등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은 물론 민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간기구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FTA와 한·중·일 IT협력

가. IT분야 교역·투자의 활성화

한·중·일 3개국간 FTA를 통한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현존하는 다양한 교역·투자관련 장벽의 제거/완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일본은 전 IT품목에 대하여 무관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부품을 제외하면 IT분야에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일본 모두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만 우리나라가 기간통신서비스에 49% 외국인 지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한국,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역·투자관련 제약이 많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점차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제도는 최근 개정 수출입세칙을 시행함(2003.1.1)에 따라,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평균 수입관세율을 12%에서 11%로 1%p 인하하였는데, 특히 IT 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의 관세는 소폭 인하에 그쳤는데 특히 디지털카메라의 관세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부품의 관세도 3%에 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 구매를 우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정보기술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정보화 선도단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우대하도록 규정한 조달 지침을 제시했고, 이 지침은 세무 행정 분야의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적용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구매할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중국산 제품의 구입 비중이 50%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산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안별로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 2003년부터 중국이 핸드폰 수입관세를 무관세화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완제품의 대중수출은 중국 단말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허가, 쿼터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GSM방식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입허가(Import licence)를 받은 일정량(Quota)의 완제품 수출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CDMA방식의 경우 자국내 단말기 생산 및 판매를 허가한 19개 업체의 연간 최대 할당량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완제품 수입의 경우 중국기업이 주도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은 외국인투자 우대제도의 일환으로서 세금감면 중심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경제특구, 개방구, 하이테크개발구 등의 특정지역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프라건설 등에 대해 경제특구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중점 투자 유치분야가 다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률에는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및 동법 실시 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에 관한 잠정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는 장려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외상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투자는 중앙정부(국무원) 또는 지방정부의 심사승인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중국은 자국 기업에게는 33%의 기업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개발구 등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면제-3년 반감’이라는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해 왔다. 이상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는 일반적으로 전 제조업에 적용되는 반면,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이 존재한다. 유선전화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는 WTO 가입 3년 이내 25%, 5년 이내 35%, 6년 이내 49%로 예정되어 있다.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통신사업자의 중국시장진출은 중국 통신사업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신규법인설립 또는 기존 통신사업자에의 지분참여 형식을 취할 것인 바, 특히 중국은 역무간의 상호진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역무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한·중·일 FTA는 결국 한국, 일본보다는 주로 중국의 교역·투자상의 제약을 점차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가 자국의 일반적인 시장개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1절에서 제시된 다양한 IT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표 20 > 한·중·일 주요 IT품목 관세현황

HS코드	품목명	대상국	관세율(%)
852520	이동전화 단말기	한국	0
		중국	0
		일본	0
8541	반도체	한국	0
8542		중국	0
3818		일본	0
854890			
847160	LCD 모니터	한국	0
		중국	0

		일본	0
847130	노트북PC	한국	0
		중국	0
		일본	0
		한국	3.6
847141	중대형 컴퓨터	중국	0
847149		일본	0
847150		한국	0
847160	CRT 모니터	중국	0
		일본	0
		한국	0
847170	보조 기억장치	중국	0
		일본	0
		한국	0
851711 851719	유선 전화기	중국	3.6
		일본	0
		한국	0

HS코드	품목명	대상국	관세율(%)
854011	음극선관 모니터	한국	8
854012		중국	12
854060		일본	0
854091 854099	전자부품관	중국	6
		일본	0
		한국	8
853521 853529 8536 853890 8534	기구부품	중국	14
		일본	0
		한국	8
		중국	14

자료: 관세청

나. MRA 등 비관세장벽분야 협력

MRA는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체결국간에 상호인정하기 위한 약정으로, 수출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비용의 감소, 시험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 및 규제비용의 감소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MRA는 기술, 표준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MRA는 각국이 고유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간에는 이미 MRA가 시행 중이며 APEC을 중심으로 개도국도 MRA로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MRA의 기본구조는 수입국이 수출국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수입국의 제도와 요건에 따라 수행된 시험 및 인증을 인정하여 시장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에서 통신기기분야 MRA를 포함시킬 경우 IT산업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일본은 전화, ISDN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교환설비 등 전기통신망과 연결되는 유선단말장비는 통신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기준적합승인(Technical Condition Compliance Approval : TCCA)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선기기는 전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 인명과 재화의 보전 등을 위해 기술기준적합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with Technical Regulations : CCTR)과 형식검정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선통신기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하고, 무선통신기기는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을 받아야하며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제도는 한국, 일본보다 더욱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제조업자는 NAL(Network Access Licence)와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등의 자격을 얻어야만 정보통신장비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과정은 통상 4~8달 정도 소요되고 주기적으로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일 FTA는 통신기기의 MRA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한·중·일 FTA에도 통신기기분야의 MRA를 포함시켜 3국간 교역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5장. 결론

한·중·일 IT산업이 발전단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및 협력을 통하여 3개국간 동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이유는 IT산업이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고, 가치사슬상의 각 단계에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기술 및 자본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IT협력과 무역·투자 활성화로 보다 혁신주도형의 IT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일부 분야에서의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표준협력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미 한·중·일 3국의 IT분야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개국간 FTA도 IT분야에서는 충분히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중·일 3개국간 FTA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간 채널을 통하여 추진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인터넷, 디지털 TV/방송, 베이징 올림픽 등 7개 분야 IT협력의 성공적인 수행과 다양한 기술·인력교류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측이 기대하는 IT분야 자국 경쟁력 강화에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부응해야 FTA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IT협력의 강화와 FTA의 현실화를 위하여 간과되어서는 안 될 측면은 IT산업의 국제분업 관계에서 동남아 지역의 위상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지역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게도 중요한 교역시장이며 투자지역이다. 따라서 한·중·일 3개국에 국한된 IT협력보다는 한·중·일 3개국에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동아시아 IT협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FTA의 경우에도 한·중·일 3개국에 국한되는 FTA보다는 동남아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는 것이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국내 IT산업이 더욱 고도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IT부문도 함께 발전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22
-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東北亞K 經濟協力 研究 시리즈 99-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2
- 최계영, 권남훈, 오정숙, "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OECD국가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2
- 최계영, 박종훈, 김승욱, 강승호, 정미경, 정시연, 신성문, 배찬권, "MRA의 경제적 효과 연구", 용역사업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2
- 최계영, 박종훈, 강병구, 오정훈, 배찬권, 신성문,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상호 인증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MRA)연구", 용역사업보고 01-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 최계영, 박인원, "FTA추진을 위한 IT부문 장기전략", ICA, 2003. 12
- 최계영, 이홍재, 고상원 "정보통신산업중장기시장전망: 2003-20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2
- Elhanan Helpman and Assaf Razin,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The MIT Press, 1991
- Michael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Y. The Free Press, 1990
- OECD,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3
- 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3, Vol. 1-2
- Robert Z. Lawrence,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Integrating National Econom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6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2003", 2003.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